

민주·인권·평화 정신 담은 '오월의 나비' 세계로 날다

아시아의 창 문화전당

글 실는 순서

- 1 예술극장
- 2 어린이 문화원
- 3 문화창조원
- 4 문화정보원
- 5 민주평화교류원

광주항쟁 예술적 승화

'열흘간의 나비떼' 상설 전시

민주평화교류원의 전시콘텐츠는 '빛의 정거장' 광주, 민주주의의 광원(光源)을 주제로 만들어졌다. 빛의 도시, 광주가 찬란한 민주주의의 모태가 됐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형식화한 대표적인 개상설 전시되는 '열흘간의 나비떼'이다.

'열흘간의 나비떼'는 변태과정을 거친 뒤 화려하게 사라지는 나비와 같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시민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뜻을 녹여낸 전시 콘텐츠의 핵심 개념이다. 전시는 광주항쟁을 역사적으로 재현하는 것에서 벗어나 예술적 시각으로 조망함으로써 민주·인권·평화의 보편적 가치를 관람객들이 감성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전시는 옛 전남도청 등 보존건물 5개 동(옛 전남도청 본관, 경찰청 본관, 민원실, 회의실, 상무관)에서 22개 전시 콘텐츠로 나뉘어 선보인다. 5·18 당시 상황을 기·승·전·결로 표현한 작품들이 설치된다. 작품들은 5·18 당시 도청 본수대 광장에서 시작된 시민 햇불 대성회를 시작으로 금남로 앞 집단발포, 해방공간, 마지막 향전에 이르는 극적인 10일간의 여정이 담겼다.

옛 경찰청 본관에는 민주화를 요구하며 시작된 시민의 햇불 성화와 5·18의 변곡점이 된 금남로 집단 발포 현상이 그려진다.

이 장면은 '아우성'이라는 콘텐츠로 구현되며, 관람객들이 손으로 만지면 영상과 글씨가 흐트러지는 체험형 방식으로 제작됐다. 작품 '깨어진 거울'은 유럽 전위예술가인 피스톨레토씨의 작품 개념을 빌려온 것으로, 시민들을 향해 집단발포가 이뤄졌던 금남로 현장을 깨진 거울로 이미지화 했다.

전남도청 회의실에서는 시민군들의 최후항전을 앞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과 계엄군에 맞선 시민들을 모습을 담은 '죽음의 행진'을 형식화한 작품이 관객을 만난다. 항쟁의 심장부였던 도청 상황실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고뇌했던 시민군과 민주·인권·평화를 염원했던 숭고한 광주정신을 감동적으로 체험하는 콘텐츠로 구성된다. 광주 시내에 울려 퍼졌던 마지막 길거리방성과 계엄군의 탱크 소음이 울리며 공간 자체가 진동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5·18 희생자들의 시신을 안치했던 상무관은 정신을 기리는 메모리얼홀로 단장된다.

민주인권 평화기념관 전시 콘텐츠를 마련한 황지우(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오월의 서사(광주항쟁 전개과정)를 보면 마치 누군가가 써놓은 것처럼 기승전결이 완벽한 서사구조를 갖고 있어 이를 전시공간에 구현했다"며 "민주인권평화기념관은 죽어있는 기념관이 아니라 방문객과 상호작용하는 감성의 울림터, 공명이 일어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교류원은 옛 전남도청 등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6개 공간을 아우른 복합건물이다. 전남도청과 전남경찰청이 목표로 이전한 뒤 남겨진 이들 건물은 현재 문화전당의 터전이자 모태가 됐다. 문화전당 방문객이 처음으로 들르게 되는 민주평화교류원은 광주의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세계와 나누고 문화·예술 교류와 협력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공간에서 펼쳐지는 전시는 광주항쟁의 정신을 예술로 승화해 생동하는 아시아의 문화적 기억을 만들어가는 '감성의 공명터'를 지향한다. 민주평화 교류원의 리빙센터는 인권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는 북카페와 체험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문화와 예술교류 창구

아시아 문화장관 회의 개최

민주평화교류원은 5·18 민주평화 기념관, 문화교류지원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5·18 민주평화 기념관은 '오월정신'의 문화·예술적 승화를 통해 보편가치를 체험케 하는 공간이다. 옛 도청 별관에 들어설 '리빙센터'는 전세계 민주·인권·평화 관련 정보와 가치를 체험하고 공유하는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이 공간에는 관람객들이 민주·인권·평화 관련 도서를 자유롭게 검색하는 북카페가 마련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는 미디어 체험관인 '기억의 길' 프로그램도 있다. 시민들은 물론 국내외 작가들이 머물면서 창작하는 창작실, 갤러리 등도 들어선다.

문화교류지원실은 아시아문화장관회의, 문화 ODA 사업 등 정부 차원의 교류, 아시아전통 음악·무용, 민담과 설화를 콘텐츠화하는 민간차원의 문화예술 교류사업 등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추진단)은 지난해 한국-남아시아 문화장관회의, 2013년 한국-동남아시아 문화장관회의, 2012년 한국-중앙아시아 문화장관회의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했다.

추진단의 꾸준한 지원으로 탄생한 '한-아세안 전통오케스트라'는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만찬'에서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문화교류지원실은 '한-아세안 전통오케스트라'와 같은 문화예술 교류를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문화전당을 명실상부한 문화교류의 거점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세계문화포럼(2016년 9월), 아셈(ASEM)문화장관 회의 유치(2016년 10월)를 비롯해 유네스코 창조산업 전문기구, 아시아문화도시 사무국 유치도 민주평화교류원의 핵심현안이다.

민주평화교류원의 두드러진 업무 특징의 하나는 문화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추진이다. 이는 문화적인 원조사업을 바탕으로 아시아권 국가들을 돕고 문화전당과 협력체계를 다질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으로 통한다.

민주평화교류원은 문화전당 인프라를 활용하는 MICE 산업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MICE는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관광산업의 화두이기도 하다.

민주평화교류원 관계자는 "단순한 문화예술 콘텐츠의 교류를 넘어 '민주·인권·평화'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역과 아시아와 세계를 잇는 가치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오는 9월 4일 개관하는 아시아 문화전당의 민주평화교류원. 이 공간은 광주의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세계와 나누고 문화·예술 교류와 협력의 거점역할을 하게 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민주평화교류원 전시 콘텐츠 '빛의 정거장'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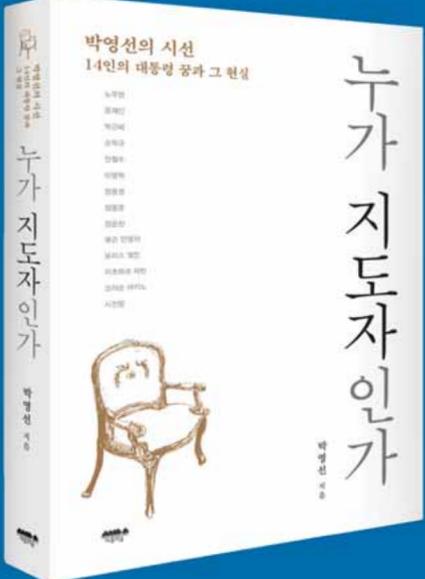
박영선 의원 새 책

화제의 베스트셀러!

“누가 지도자인가”

저자 사인회

- 일시: 8월8일(토) 오후3시
- 장소: 광주 영풍문고 (종합버스터미널 1층)



누가 지도자인가





마음의숲

“지역균형 발전 고려 경도 복합리조트 선정해야”

호남 국회의원 21명 촉구 성명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복합리조트 공모사업과 관련해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이 경도 복합리조트 선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수 지역구인 김성곤·주승용 의원을 비롯해 호남지역 의원들은 6일 '지역균형발전에 부합되는 복합리조트 선정 요구 성명서'를 내고 경도 복합리조트 선정을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는 강동원·김관영·김광진·김동철·김승남·김영록·김준진·박주선·박지원·박혜자·신정훈·우윤근·유성엽·이개호·이윤석·임내현·장병원·전정희·황주홍 의원 등 21명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여수 경도가 복합리조트로 선정된다면 남해안 관광활성화를 통해 연간 고용창출 1만282명, 생산유발 2조4000억원, 부가가치 7500억원에 이르는 효자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관성대로 수요와 접근성만을 보고 복합리조트를 선정할 경우 국내 관광산업은 수도권과 지방간 양극화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호남을 문화와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원대한 비전에 역행해서는 안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들은 "기존 수도권과 제주 중심의 외국인 관광객 방문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관광산업의 지역균형 발전 방식이 고려돼야 한다"며 "복합리조트 사업의 성과를 빨리 내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와 공공기반 시설 구축 등 사업 기반 여건이 성숙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복합리조트 공모사업에는 전국적으로 9개 지역 34개 컨소시엄이 기본제안서(RFC)를 제출했으며 이달 말께 대상 지역이 선정될 예정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